

21세기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백(bag) 디자인

김지영*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Bag Designs Expressed on 21st Century Fashion Collections

Ji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Univ.

1. 서론

21세기에 들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이 다양화, 개성화됨에 따라 의상 뿐 아니라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에 있어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디네이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던 패션 액세서리가 기능성과 개성표현의 수단으로써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디자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분화되고 있다.

패션액세서리 중 특히 여성의 백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기능적인 특성으로 인해 현대에도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004년 2월 프랑스의 '모드 텍스타일 박물관(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에서는 백을 주제로 한 대형 전시회가 열려 역사속의 유물들과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최신 백이 전시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백의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백 디자인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백의 형태나 소재 개발 등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트렌드나 개발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2000년 S/S부터 2008 S/S까지의 'Collections-Trends Visual Map' 총 17권과 'Collezioni Accessories' 총 8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된 사진자료는 런던, 파리,

밀라노, 뉴욕 컬렉션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Collections-Trends Visual Map'의 '백(bag)' 부분에 실린 499점과 'Collezioni Accessories'의 '컬렉션 리포트'에 실린 166점의 총 665점 중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진 82점을 제외한 583점을 선정하였다. 백 디자인에 있어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를 선별하기 위하여 583점의 자료 중 출현빈도가 3회 미만인 디자이너의 작품 84점을 다시 제외하여 총 499점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분석 항목

백 디자인의 분석은 '백의 구조', '착용법', '디자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백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은 본체의 형태와 크기, 손잡이, 여밈법, 무의 형태이었으며, 착용법에 따라서는 손이나 팔에 드는 형, 손에 쥐거나 겨드랑이에 끼우는 형, 어깨에 메는 형, 허리나 엉덩이, 팔목 등에 차는 형, 옷처럼 입는 형으로 구분하였다. 디자인 요소는 색채, 소재, 장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연구 결과

3.1. 백의 구조에 따른 분석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백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본체의 형태는 사각형(40.9%)이 가장 많았고, 반달형(21.8%), 사각 변형형(15.6%), 원통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의 크기는 미디엄(43.8%), 빅(34.7%), 스몰(21.5%)로 나타났다. 백의 너비와 입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무의 형태는 사각형(39.8%), 삼각형(11.5%), 타원형(4.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가 없는 형태

39.8%로 나타났다. 여밈의 방법은 지퍼(32.5%), 플랩과 후크(26%), 잠금쇠(14.4%), 오픈형(10.4%)의 순서로 나타났다.

3.2. 착용법에 따른 분석

백의 착용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손에 드는 형이 43.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깨에 메는 솔더 백 형이 26.7%,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겸용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17.2%, 손에 쥐는 형이 8%, 허리에 메는 형이 4%로 나타났다.

3.3. 디자인 요소에 따른 분석

백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가죽(33.8%)으로 악어나 도마뱀과 같은 고급 가죽(6.8%)과 스웨이드(3.6%) 등을 포함하면 총 44.2%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죽 다음으로는 패브릭(21%), 페이턴트(13.8%), 복합소재(11.8%), 퍼나 깃털(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색채의 경우 가죽의 주된 색상인 블랙(17.6%)과 브라운(17.4%)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흰색이나 아이보리(14.6%), 베이지(10.4%), 실버나 골드와 같은 메탈 컬러(6%)로 나타났다. 기타 레드, 핑크, 옐로와 그린 계열의 밝고 화사한 색상계열이 나타났다. 장식의 요소를 살펴보면, 2가지 이상의 배색을 장식 요소로 사용한 경우가 21%, 고급의 소재감이나 로고 패턴, 화려한 패턴 등과 같이 소재감을 장식요소로 사용한 경우가 1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스티드나 아일렛, 체인 장식과 같은 금속성의 장식이 13.2%, 술, 비조, 파이핑, 스티치와 같은 간단히 덧붙이는 장식처리가 8%로 그 뒤를 이었다. 장식이 전혀 없는 무장식의 실용적인 스타일도 12.8%에 해당하였다.

3.4. 2000년대 이후 백 디자인의 유형분석

2000년대 이후 백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컬렉션에 나타난 백 디자인의 유형은 크게 실용형(55.5%), 장식형(28%), 과시형(16.5%)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실용형은 단순한 구조와 넉넉한 크기가 특징적이었다. 관리가 편한 신소재 백으로 얇고 가벼운 기능성 소재나 레저 활동에 적합한 방수 백, 그리고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는 힙백(Hip-sack)이나 벨티드 백(belted bag)등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겸

비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장식형은 전체적인 코디네이트에 있어 포인트 연출로 사용되며 과감한 디자인이나 연출이 특징적이었다. 체인장식이나 화려한 배색, 금속장식 등은 코디네이트에 있어 시선을 끄는 포인트로 사용되었다.

과시형은 브랜드가 상징하는 사치스러운 럭셔리 감각을 통해 과시하고자 하는 스타일로 로고 백이나 악어가죽, 모피 등 고급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4. 결론

21세기 컬렉션에 나타난 백의 디자인은 크게 실용형, 장식형, 과시형으로 나타났다. 실용형의 디자인은 여성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다목적성, 신소재에 의한 경량화, 스타일연출을 위한 패션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장식형 디자인은 전체적인 의상의 포인트 연출로 사용되었고 이브닝 백이나 작은 포세트, 형태감이 독특한 아트백의 스타일로 나타났다. 과시형은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로고 백과 고급소재에 의한 럭셔리 백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1] Chenoune, Farid, 「Carried Away-All about Bags」, Vendome Press, 2005.
- [2] Menkes, Suzy, "Letting the mighty handbag, silent servant, speak for itself",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4. 11. 23.
- [3] Steele, Valerie · Borrelli, Laird, 「Bags- a Lexicon of Style」, Scriptum Editions, 1999.
- [4] Tredre, Roger, "Insatiable Appetite of Handbag Addic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7.03.17.
- [5] 김지영 · 정소영, "현대 패션 문화에 나타난 패션 백 (fashion bag)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pp. 334-351, 2006.
- [6] 양아랑 · 김주연 · 이효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션가방의 조형성, 한국가정과학회지 10(2), pp.53-62, 2007.
- [7] Meadow, Celia Stall 저, 김용숙의 역, 「패션 액세서리」, 시그마프레스, 2008.